

## 거주지역별 비형식적 다문화 경험정도와 문화간 감수성

- 서울지역 초등학교학생들을 사례로 -

백 수 은

서울교육대학교 글로벌교육연구소

### I. 서론

####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정보통신의 발달과 자본주의 생산관계의 확대에 의해 야기되는 이주의 흐름은 기존 국민국가의 경계를 벗어나 초국가적 이동을 통한 다양한 문화, 인종과의 마주침을 경험하게 한다. 그 동안 단일민족단일언어·단일문화를 국가 정체성으로 내세웠던 한국사회도 외국인 이주노동자와 국제결혼의 증가에 따라 인종·종교·문화적 측면에서 다양성이 증가하며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다른 문화·인종과의 마주침은 낯설을 넘어서 두려움으로, 때로는 비하와 배척의 시선을 갖게 되어 갈등과 혼란, 소통의 장애, 분쟁발생을 야기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자신과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는 물론 더 나아가 타문화에 대한 긍정적 행동양식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상이한 문화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인식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 각 문화상황에 적절한 행동양식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일반적으로 문화간 역량(Inter-cultural competence)이라 명명되는데 이는 문화간 감수성(Inter-cultural sensitivity)에 기초한다. 따라서 다문화 교육의 궁극적 목적이 문화간 역량의 배양이라 할 때 다문화 교육은 교육대상의 문화간 감수성에 대한 측정과 분석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김옥순, 2008).

문화간 감수성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서 다른 문화와의 접촉교류 경험이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이러한 경험은 아동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그 동안의 다문화에 대한 직간접적인 교류경험에 따라 상이하다. 지역별 외국인 인구통계를 살펴보면,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국내거주 외국인 인구의 64%가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서울의 경우 지역구 25개 중 영등포구(8.7%), 금천구(7.2%), 구로구(6.6%), 중구(6.5%), 용산구(5.4%)의 순으로 외국인 거주비율이 높았다(법무부 2011년 2월 통계). 또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은 인종과 출신국가, 거주목적에 따라 다양한 층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집단의 거주지역 또한 위계적 공간분포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이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외의 외국인 밀집지역(ethnic place) 중 대표적인 사례는 조선족 밀집지역 영등포구 가리봉동, 이슬람 사원을 중심으로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이주한 무슬림 밀집지역 이태원동, 프랑스인 밀집지역 반포동 서래마을, 안산공단을 중심으로 동남 아시아권 이주민들이 형성한 안산 원곡동의 '국경없는마을' 등이 있다. 이를 통해 한국 내에서도 지역별로 다문화 지역 정체성이 다를 수

있고, 이에 따라 각 지역민들이 느끼는 다문화 상황 인식정도와 다문화 접촉경험의 내용, 그로 인한 문화간 감수성 또한 다를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울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초등학생들의 비형식적 다문화 경험정도와 문화간 감수성을 측정하고, 거주지역별 초등학생들의 비형식적 다문화 경험정도와 문화간 감수성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앞으로의 다문화 교육이 교육 대상자의 사회적·문화적 맥락과 문화간 감수성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수준과 내용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알아보는데 목적을 두었다.

첫째, 거주지역별 초등학생의 비형식적 다문화 경험정도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가설-1. 외국인 밀집지역 중 마지촌 거주지역 초등학생은 데니즌<sup>1)</sup> 거주 지역 초등학생보다 다문화 경험정도가 높게 나올 것이다.

가설-2. 외국인 밀집지역 중 데니즌 거주지역 초등학생은 외국인 비밀집지역 거주 초등학생보다 다문화 경험정도가 높게 나올 것이다.

둘째, 거주지역별 초등학생의 문화간 감수성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가설-1. 외국인 밀집지역 중 마지촌 거주지역 초등학생은 데니즌 거주지역 학생보다 문화간 감수성이 높게 나올 것이다.

가설-2. 외국인 밀집지역 중 데니즌 거주지역 초등학생은 외국인 비밀집지역 거주 초등학생보다 문화간 감수성이 높게 나올 것이다.

## II. 이론적 배경

### 1. 비형식적 다문화 경험 요인

다른 문화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출생이후 타인과 상호작용하고 타문화를 접한 경험에 의해서 형성되어 간다. 비형식적 다문화 경험이란 학교에서 받는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노출경험, 여행경험, 개인적인 경험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다문화적 요소를 접촉한 경험을 말한다. Ward(1996)는 예비교사들이 다문화 학생들을 지도할 때 그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이전의 비형식적 다문화 경험요인을 가족, 친구, 사회, 직장, 학교, 교회, 미디어, 외국어 그리고 여행, 총 9가지로 좀 더 자세히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이 9가지 요인들은 그들의 문화적 다양성과 인종 정체성에 대한 개인의 태도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혜진(2009)은 '초등학생의 다문화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에서 Ward가 제시한 비형식적 다문화 경험의 9가지 범주를 한국 초등학생의 실정에 맞게 직장 요소를 제외하고 학교·학원 요소를 하나로 통합하여 총 8가지 범주로 구분하였다.

1) 글로벌 도시로 이주하는 외국인들은 계층적으로 차별화된 회로를 통해 이동한다. 상층회로로 이동하는 '데니즌'의 경우, 글로벌 경제를 원활하게 하는데 필요한 조정과 중재의 역할을 하러 이동하는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로 '특권화된 외국인들'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생존회로'로 이동하는 '마지촌'은 경제적·사회적 생존을 위해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외국인들과 여성들을 의미한다. 이들은 경제적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본국을 떠나 진출국에서 '주변적 존재'로 살아 간다(김현미, 2005:23-24).

본 연구에서는 Smith, Moallem & Sherill(1997), Ward(1996), Chang(2002), 박윤경 외(2008), 이정연(2010)이 예비교사의 다문화 인식과 비형식적 다문화 경험 연구에서 밝힌 각각의 요인들에 대하여 이해진(2009)이 제시한 비형식적 다문화 경험요인 8가지 범주를 기본 토대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첫째, 가족 경험은 개인의 다양성에 대한 인종의 정체성과 태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그의 가족 중 다른 인종과 문화출신의 유무와 얼마나 많은지에 따라서 개인의 태도가 결정된다고 본다. 또, 부모들의 다양성에 대한 태도와 부모들이 인종과 문화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대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지는 아동의 다문화 태도 형성에 중요한 측면으로 작용한다(Ward, 1996).

둘째, 친구 경험이다. Smith, Moallem & Sherrill(1997: 54)은 예비교사들이 다른 집단에 대한 태도를 취할 때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친구를 끄는다는 것과 다른 인종과 문화를 가진 사람과의 즐거웠던 사건들이 다양성에 관한 개인의 태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이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다른 인종이나 문화를 가진 친구와 긍정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이 다양성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이다.

셋째, 지역사회 경험이다. 아동이 성장하면서 인종적, 문화적으로 혼합된 이웃과 살았는지의 여부와 그들과의 접촉 경험정도에 따라 인종의 정체성과 태도가 결정된다.

넷째, 학교·학원 경험이다. Smith, Moallem & Sherrill(1997: 54)은 예비교사가 인종적으로 혼합된 학교에 들어갔는지, 다양한 인종, 문화배경을 가진 교사로부터 지도 받았는지, 교사와의 상호작용은 어땠는지의 여부가 그들의 인종적 정체성과 다양성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그러므로 학교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접할 기회가 제공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런데 한국의 초등학교들은 방과 후에 시간을 보내는 주된 공간으로 학원을 꼽았기 때문에 학원을 학교와 한 영역으로 묶어 범주화할 수 있다.

다섯째, 종교 경험이다. 종교는 학생 태도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 믿음과 가치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하며 종교단체에서의 인간관계는 다양성에 대한 그들의 태도발달을 구체화 한다(Chang, 2002; 이해진, 2009: 17)

여섯째, 미디어 경험이다. 다양성에 대한 태도는 어렸을 때부터 무의식적으로 멀티미디어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특히 청소년기에는 그들이 좋아하는 다른 인종, 문화 출신의 영화배우, 작가, 그리고 우상에 의해서 쉽게 영향을 받는다(Chang, 2002; 이해진, 2009: 17). 또한 미디어의 발달은 우리가 기존에 알지 못하던 다양한 문화, 민족, 사회에 대한 많은 지식을 전달해 주었다. 미디어가 다문화 시대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해 사람들은 텔레비전에 나온 특정 행동에 관련된 타인을 관찰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 그들 스스로의 삶 속에서 학습한 행동을 실행에 옮길 수 있다는 사회 학습 이론에 의거해 매스미디어를 정보 전달과 인식 변화의 도구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이정연, 2010: 28).

일곱째, 외국어 경험은 개인의 인종적 정체성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다. Ward(1996)는 예비교사의 외국어 능력과 다양성에 대한 믿음, 다문화 경험사이의 관계에 대해 연구했는데 그 결과 외부세계에서의 경험과 가장 강력한 관계를 갖는 것이 외국어 능력이었다. 외국어 능력이 뛰어나면 좀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는 시야가 확보되고 좀 더 다양하고 직접적인 상황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여덟째, 여행 경험은 거주지를 떠나서 다양한 문화, 사람들과 접함으로써 개인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요인이다. 낯선 것들과 접할 기회를 갖는 것은 다른 인종과 문화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을 줄 수 있다(Chang, 2002; 이해진, 2009: 17).

## 2. 문화간 감수성

문화간 감수성은 그동안 문화간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연구에서 제기되어 온 개념이다. 문화간 감수성은 국가적으로나 민족적으로 문화간 장벽을 넘어 효율적이고 긍정적인 관계를 수립하고 자민족 중심주의를 초월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문화적 차이를 경험하고 인정하기 위한 능력을 의미한다(Hammer, Bennet & Wiseman, 2003: 430). 이러한 개념은 고정관념에 빠지지 않고 문화적 일반화를 할 수 있는 사고, 문화차이에 대한 호기심, 불확실한 것에 대한 인내심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자기 문화에서 적절한 행동과 타문화에서 적절한 대안적인 행동들에 관한 지식을 포함하고 있다.

Chen과 Starosta는 문화간 감수성을 문화간 소통의 감정적인 측면에 있어 다양한 문화들의 차이를 이해하고 즐기며 수용하고자 하는 적극성이라고 정의 내렸으며, 문화간 감수성을 지닌 개인은 자신이 속한 집단이 갖는 규범과 타문화 집단의 행동, 감정, 인식이 자신과 어떻게 다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했다(Chen & Starosta, 1994; 김옥순, 2009: 64-65). 또한 문화간 감수성을 문화적 역량의 예측요인으로 보는 관점으로, 문화간 감수성이 높은 개인은 다른 문화의 사람들과 더 원만히 상호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즉, 문화간 감수성은 다른 문화에 대한 친밀감, 문화차이에 대한 허용, 그리고 다문화 사회의 구성원들이 문화접촉 상황에서 겪게 되는 갈등과 분쟁을 다루는 능력에서 나타나는 개개인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다(김옥순, 2008: 46-47).

Chen과 Starosta(2000)는 문화간 감수성 연구를 통해 문화간 감수성을 지닌 개인은 대체적으로 높은 자아 존중감(self-esteem)을 지니고 있었으며, 사회적 상호작용을 함에 있어 자신의 사회적 행위가 상황에 적절한지에 민감하였으며, 타인에 대해 개방적이었고, 뛰어난 감정이입 능력과 참여적 상호작용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문화간 감수성이 높은 개인은 타문화의 사람들과 상호작용함에 있어 성급한 결론을 내리기 보다는 진지하게 경청하여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태도를 보였는데, 이런 태도에 의해 문화간 감수성을 지닌 개인은 그렇지 않은 개인에 비해 타문화와의 문화간 차이를 즐기고자 하는 욕구를 더욱 많이 갖게 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문화간 감수성의 개념은 요즘 한국사회가 단일민족사회에서 다양한 문화와 인종들로 구성된 다문화 사회로 급속하게 변화하게 됨에 따라 점차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 Ⅲ. 연구 방법 및 절차

### 1. 연구 대상 및 표집 방법

본 연구는 서울지역 6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거주지역에 따른 비형식적 다문화 경험 정도와 문화간 감수성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6곳의 지역은 지역내 외국인 거주비율과 거주 외국인의 체류자격 및 국적을 기준으로 외국인 밀집지역 2곳(강서구 방화동, 양천구 목동)과 외국인 밀집지역 중 마지근 거주지역 2곳(영등포구 대림동, 용산구 이태원동), 데니즌 거주지역 2곳(서초구 서래마을, 용산구 동부 이촌동)을 선정하였다. 위의 지역 내에서 비확률표집방법 중 임의추출법으로 6개의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각 초등학교의 인구사회학적 환경은 다음과 같다. 대상지역별 인구통계현황은 2010년 서울시 통계연보에 따랐다.

## 가.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S초등학교

S초등학교는 강서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역적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강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수는 총 6,379명으로 영등포구38,815명, 구로구28,931명, 용산구12,290명과 비교했을 때 2~5배 정도 외국인 거주 인구비율이 낮다. 따라서 이러한 인구사회학적 환경요인의 영향을 받아 S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다문화 가정 아동은 5명으로 부모 중 한 명이 중국인인 경우 2명, 우즈베키스탄인인 경우 1명, 새터민 가정 아동 2명이다. 따라서 S초등학교는 서울 다른 지역의 다문화 심도가 높은 학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다문화 가정 자녀수가 적고 이들 다문화 가정 자녀들 또한 피부색이 다르지 않고 한국어 구사 능력도 현저하게 낮지 않아 의사소통 상황에서 쉽게 눈에 띄지 않는다.

## 나. 서울시 양천구 목동 M초등학교

M초등학교는 양천구 목동에 위치하며 지역적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양천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5,222명으로 서울지역의 다른 구에 비해 외국인 거주 인구비율이 낮다. 따라서 이러한 인구사회학적 환경요인에 영향을 받아 M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다문화 가정 아동은 1명으로 어머니가 일본인인 경우이며 인종의 차이가 없어서 외모가 눈에 띄지 않으며 한국어 구사능력 또한 일반 아동과 비슷하다.

## 다.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조선족 밀집지역 D초등학교

D초등학교는 영등포구 대림2동에 위치하며 이곳은 한국계 중국인인 조선족의 밀집도가 높은 지역이다.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35,949명 중 한국계중국인이 32,688명, 중국인이 1,138명 등으로 한국계 중국인인 조선족이 90.9%에 달한다. D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대림 2동은 특히 조선족 밀집도가 높아 동 인구 19,463명 중 조선족이 7,358명으로 37.8%를 차지하므로 불법체류자를 제외하고도 인구 3명 중 1명은 조선족이라고 할 수 있다. D초등학교의 다문화 가정 아동은 32명이고 이 중 31명은 부모가 조선족 또는 중국인이지만 인종의 특성상 외모가 눈에 띄지는 않는다. 이곳에 거주하는 조선족들은 주변의 공단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거나 조선족 및 중국인을 상대로 하는 상점에서 일하며 '마지즌'으로 구분할 수 있다.

## 라.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이슬람 사원 거리 지역 내 B초등학교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1동에 위치한 B초등학교는 학교와 바로 인접한 지역에 이슬람 서울성원이 있어 주변 거리에서 쉽게 이슬람권 레스토랑, 할랄 정육점 등 아프리카와 중동 이슬람권 문화를 접할 수 있다. B초등학교의 다문화 가정 아동은 총 65명으로 부모 중 1인이 외국인인 학생 45명(일본 9명, 중국 4명, 대만 3명, 중앙아프리카 5명, 러시아 8명, 몽골 1명, 필리핀 3명, 아프리카 3명, 인도네시아 2명, 남부아시아 4명, 기타국가 3명)과 부모 모두 외국인인 학생 20명(아프리카 4명, 조선족 2명, 중국 4명, 몽골 5명, 남부아시아 3명, 러시아 2명)이 있다. 이들 중에는 인종에 따라 피부색이 달라 눈에 띄는 경우가 많으며 한국어 구사가 미흡한 경우도 많다. 또한 다문화 가정 부모들은 생계형 외국인 노동자이거나 이태원 주변의 상점에서 일하여 '마지즌'으로 구분할 수 있다.

## 마.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서래마을 J초등학교

J초등학교는 서울시 강남구 반포4동 프랑스인 집단 거주 지역이라고 불리는 '서래 마을' 속에 위치하고 있으며 학교 주위와 근접 지역에서 프랑스 마을을 구분하는 경관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이곳에는 이주 외국인 중 '데니즌'으로 구분할 수 있는 주재원, 연구원 등의 프랑스인 또는 유럽 국적의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여 이들과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있다. 그러나 이들의 자녀들은 서래마을 내 '프랑스 학교'에 다녀서 J초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는 없다. J초등학교 내 다문화 가정 아동은 2명으로 부모 중 1명이 미국과 일본 국적을 가졌으며 외모는 한국인과 비슷하여 눈에 띄지 않는다.

바. 서울시 용산구 동부이촌동 리틀 도쿄 내 N 초등학교

N초등학교는 서울시 용산구 동부이촌동 중 국내 거주 일본인 약 1,200명의 일본인이 모여 살아 '리틀 도쿄'라고 불리는 지역과 가까이 위치해 있다. '리틀 도쿄'라고 불리는 이 지역은 주위 아파트에 많은 수의 일본인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들은 주로 일본 회사의 주재원이나 대사관 직원들로 이주 외국인 중 '데니즌'계층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인종적 동질성 때문에 외국인 마을 같은 느낌은 없고 일본인 마을을 구분하는 문화적 표식이 많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주위 상점들을 살펴보면 일본어 간판, 안내문, 일본 식료품 전문점 등이 있다. 대다수의 일본인 자녀들은 서울 내 일본인 학교에 다니고 있다. N초등학교의 다문화 가정 아동은 총 7명으로, 부모 중 한 명의 국적이 미국인 경우 2명, 일본 4명, 이란 1명이다. 이들 중 부모가 미국과 이란인인 아동은 외모가 한국인과 다르지만 일본의 경우 외모가 비슷하여 눈에 띄지 않는다.

2. 연구설계

본 연구는 설문지를 활용한 양적연구를 통해 독립변인인 거주지역(비밀집지역, 밀집지역, 데니즌지역, 마지즌지역)에 따라 종속변인인 아동의 비형식적 다문화 경험정도와 문화간 감수성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표 III-1> 연구설계

독립 변인	거주 지역	외국인 비밀집 지역		강서구 방화동 S초등학교
				양천구 목동 M초등학교
		외국인 밀집 지역	마지즌 지역	구로구 대림동 조선족 밀집지역 내 D초등학교
				용산구 이태원동 이슬람사원 주변 B초등학교
			데니즌 지역	강남구 반포동 서래마을 내 J초등학교
				동부이촌동 리틀 도쿄 내 Y초등학교
종속변 인	비형식적 다문화 경험정도	가족, 친구, 지역사회, 학교·학원, 종교, 미디어, 외국어, 여행		
	문화간	상호작용 유능함, 문화 차이 존중, 상호작용 즐기기,		

	감수성	타문화 거부감, 자문화 우월감, 개방성
--	-----	-----------------------

### 3. 연구 도구 및 자료 처리

#### 가. 연구도구

##### (1) 비형식적 다문화 경험정도

비형식적인 다문화 경험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Ward(1996)가 개발한 Cross-Cultural Life Experience Checklist(CCLEC) 질문지를 이해진(2009)이 한국사회 초등학생 수준에 맞게 수정 보완 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질문지의 내용은 <표III-6>과 같이, '가족' 경험요인 4문항, '친구' 경험요인 5문항, '지역사회' 경험요인 3문항, '학교·학원' 경험요인 7문항, '종교' 경험요인 2문항, '미디어' 경험요인 8문항, '외국어' 경험요인 5문항, '여행' 경험요인 3문항으로 총 37문항이다. 예는 1점, 아니오는 0점으로 처리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비형식적 다문화 경험이 풍부한 것을 의미한다. 예비설문 결과 전체 신뢰도(Cronbach's α)는 .824였다.

##### (2) 문화간 감수성

지역별로 상이한 다문화 접촉 경험에 따른 아동의 문화간 감수성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Chen과 Starosta(2000)에 의해 개발, 지은주(2011)가 다시 한국어로 번안하여 아동용으로 재구성한 Intercultural Sensitivity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6개 하위영역(상호작용 유능함, 문화차이 존중, 상호작용 즐기기, 타문화 거부감, 자문화 우월감, 개방성), 2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신뢰도(Cronbach's α)는 .896이 나와 문화간 감수성 측정에 적합한 신뢰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5점 리커트 척도방식을 사용하는 이 척도의 전체문항 총점은 120점으로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문화 간 감수성은 높다고 해석한다.

#### 나. 자료처리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모두 유의수준  $p < .05$ ,  $p < .01$ ,  $p < .001$  에서 검증하였으며, 통계처리는 SPSSWIN 15.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각 영역에 대한 신뢰도 검사를 실시하여 문항간의 신뢰도를 측정하여 예측가능성, 정확성 등을 살펴보았다.

둘째, 거주지역별 비형식적 다문화 경험정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one way-anova)을 실시하였다.

셋째, 거주지역별 아동의 문화간 감수성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one way-anova)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및 논의

### 1. 거주지역별 비형식적 다문화 경험정도

거주지역별 비형식적 다문화 경험정도는 하위요인 '가족, 친구, 사회, 학교·학원, 종교, 미디어, 외국어, 여행'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하위요인 중, 상당기간 직접적으로 접촉하고 교류 경험을 할 수 있는 '친구, 사회, 학교·학원' 요인의 결

과를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외국인 밀집지역의 아동들이 비밀집지역 아동들보다 높은 경험정도를 보였다. 특히 외국인 밀집지역 중 마지근지역이었던 대림동과 이태원동 거주 아동들의 경험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 이주민 중 마지근으로 구분되는 3D업종, 단순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나 국제 결혼 이주 여성들의 경우, 한국 주류 사회의 사회 문화적·경제적 약자로서 본국의 문화나 교육 시스템 등을 계속 고수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갖추고 있지 않고, 그들 대부분이 한국 사회에 빠르게 동화되어 정착할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자녀를 한국 학교에 보내고 지역 사회에 근접해 있는 공장에 취직을 하거나 상권을 형성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등 지역민들과의 직접적인 교류 경험이 많다. 마지근 지역 중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이태원의 B초등학교의 경우, 재학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 아동의 수가 총 65명이었으며 이중 부모 1인이 외국인인 학생이 45명, 부모 모두 외국인인 학생이 20명이었다. 또한 대림동 조선족 밀집지역 D초등학교의 경우, 다문화 가정 아동이 32명이었으며 대부분 조선족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인구 사회학적 요인에 따라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들의 '가족, 친구, 사회, 학교·학원'의 비형식적 다문화 경험정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국내 거주 외국인 중 테니근으로 분류되는 일본, 프랑스, 독일에서 온 이주민의 경우 정착이 아니라 2~5년 정도의 기간에 주재원으로 거주하고 있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한국 학교에 다니기보다는 본국의 커리큘럼에 기반하여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를 다니는 등 그들만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본국의 문화를 지속적으로 향유해 나가고 있다. 즉 이들은 한국 사회에 동화 또는 정착할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지역민들과 직접적인 교류 경험의 기회가 많지 않다. 테니근 지역 중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반포동 J초등학교의 경우 프랑스인 집단 거주지인 '서래마을' 내에 위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가정 아동은 2명이며 부모 중 1명이 미국과 일본 국적을 가졌다. 또한 일본인 집단 거주지인 '리틀 도쿄' 내 동부이촌동 Y초등학교의 경우 다문화 가정 아동이 7명으로 부모 중 1명이 일본인 경우는 4명뿐이었다.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테니근지역에는 각각 프랑스인과 일본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그들은 서울 내 프랑스인 학교, 일본인 학교에 다니고 있어서 이 지역 내 아동들의 '가족, 친구, 사회, 학교·학원' 요인의 비형식적 다문화 경험정도가 마지근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온 것이라 분석할 수 있다.

비형식적 다문화 경험 요인 중 '종교' 경험 요인에 대하여는 6개의 각 지역별로 경험정도가 다르게 나타나 테니근지역, 마지근지역, 비밀집지역으로 구분하여 비교할 수는 없었다. 가장 높게 종교 경험 요인이 나온 지역은 이태원동의 이슬람 사원 거리 지역 내에 있는 B 초등학교로서, 이 지역은 이슬람 서울성원과 천주교 이태원 성당, 교회가 동시에 매우 근접해 있다. 따라서 다른 지역에 비하여 다양한 종교 활동과 행사를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경험정도가 높게 나온 것이라 분석할 수 있다.

비형식적 다문화 경험 요인 중 '미디어, 외국어, 여행'요인과 같은 간접적인 교류 경험이나 직접 접촉 경험이지만 짧은 시간 일어난 경험요인의 경우에는 테니근지역, 비밀집지역, 마지근지역의 순으로 경험도가 높게 나타났다. 외국인 밀집지역이 테니근, 마지근으로 구분되는 것과 같이 한국 내의 거주지역도 거주민들의 사회 경제적 지위에 따라 구분되는데 테니근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의 경우 가정 경제 환경이 좀 더 여유롭기 때문에, 다양한 미디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고 외국어를 좀 더 어린 나이에 배우기 시작하며, 해외여행의 경험이 많은 것이라 분석할 수 있다. 반면에 마지근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의 경우 이러한 경험도가 비밀집지역 거주 아동들보다 낮게 나타나 이 지역의 아동들에게 다른 문화를 긍정적으로 접할

수 있도록 미디어, 외국어, 여행 요인과 같은 간접적인 교류 경험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 2. 거주지역별 문화간 감수성

거주지역별 문화간 감수성 전체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테니즌지역, 외국인 비밀집지역, 마지즌지역 순으로 문화간 감수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문화간 감수성을 구성하는 하위 영역별로 구분하여 분석해 보자면, '상호작용 유능함, 문화 차이 존중, 상호 작용 즐기기, 개방성' 영역의 경우 테니즌지역, 비밀집 지역, 마지즌지역의 순으로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앞의 거주지역별 비형식적 다문화 경험정도 연구 결과 중 타문화와 직접적인 상호 작용 요인인 '가족, 친구, 사회, 학교·학원' 경험요인에서 높은 경험정도를 보였던 마지즌지역의 경우, 제일 낮은 평균값을 보임에 따라 직접적인 접촉 경험이 문화간 감수성에 항상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타 집단과의 접촉 경험이 반드시 편견의 감소를 가져오지는 않았다는 Ford(1986)의 접촉 가설 관련 연구들의 함의를 떠올려 볼 수 있다. Amir(1969), Rothbart & John(1985) 그리고 Stephan(1987) 등 사회 심리학자들은 타 집단에 대한 편견이 감소되는 접촉 조건으로 동등 지위 접촉, 친밀한 접촉, 협동적 접촉, 제도적 지원 등을 제시했다. 마지즌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들은 다른 피부색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의 경험은 많으나 마지즌은 주로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못하고 한국 문화 적응에 어리숙한 모습을 보이는 등 그들의 사회 경제적·문화적 지위가 우리 사회에서 주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동등한 지위에서 친밀하고 협동적인 접촉이 일어나기 힘들다.

이와 함께 마지즌지역 주민의 경우, 마지즌이 거주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거주지역이 지저분해졌다거나 집값이 떨어졌다거나 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등의 불만을 가지게 되어 지역주민과 마지즌 사이의 많은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러한 상호 작용의 부정적인 경험은 타문화와의 접촉에 대해 부정적인 편견이나 거부감을 형성할 수 있는데, 문화간 감수성 설문 문항 중 '타문화 거부감' 영역에서 마지즌지역이 가장 높게 나온 결과가 이를 뒷받침 해준다. '타문화 거부감' 영역의 경우, 특히 다양한 인종과 민족들을 경험할 수 있고 학교 구성원 중 다문화 가정 아동 수가 가장 많았던 마지즌지역 이태원 B초등학교의 아동들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마지즌지역 중 대림동 D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조선족 밀집 지역이지만, 조선족 자체가 외모적으로 한국인과 구별되는 점이 없기 때문에 이태원 B초등학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인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김옥순(2008)이 실행한 한중 예비교사들의 문화간 감수성 비교연구에서 한국의 대학생이 중국 대학생들에 비해 문화간 감수성의 평균점수가 높게 나온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김옥순은 위의 연구에서 소수민족들과 오랜 기간 공존해 온 중국의 대학생들은 오랜 기간에 걸쳐 다양한 측면에서 소수민족들 간의 현실적인 갈등을 경험하여 다문화에 대한 현실적인 감각을 형성시켰을 수 있지만 반면에 한국 대학생들의 경우 다민족으로 형성된 이주민들과 혼혈가정의 아동들이 자신의 현실적 이익과 충돌될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점에서 타민족타문화에 대한 보다 관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으며 이런 마음의 상태가 문화간 감수성의 점수에 반영되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마지즌지역의 경우 원 거주민과 마지즌 사이의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갈등 상황이 많기 때문에 이 점이 반영되어 다른 지역에 비해 문화간 감수성이 낮게 나왔음을 알 수 있고, 테니즌지역의 경우 원 거주민과 테니즌사이의 직접적인 접

측정험이 많이 없었고 오히려 '미디어, 외국어, 여행' 요인과 같은 간접적이고 긍정적인 접촉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문화간 감수성이 높게 나온 것임을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거주지역에 따른 문화간 감수성 분석 연구가 단순히 측정 결과만을 비교하는 것에 국한하지 않고 문화간 감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원인들을 심층적으로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자문화 우월감 영역의 경우 테니즌 지역, 비밀집 지역이 비슷한 수치를 보인 반면, 마지즌 지역 중 이태원동 B초등학교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따라서 이 지역의 경우 향후 다문화 교육이 이루어질 때, 문화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자국의 문화에 대해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하다.

## V. 결론

본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마지즌지역 초등학생의 경우 비형식적 다문화 경험 요인 중 '친구, 사회, 학교·학원' 경험요인과 같이 장기적이고 직접적인 접촉교류 경험이 필요한 요인에서 높은 수치를 보였다. 그러나 높은 수치에도 불구하고, 문화간 감수성의 각 영역에서는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 접촉 경험이 항상 타문화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 감소에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기존의 연구 결과를 증명하였다. 즉, 마지즌지역은, 우리 사회에서 3D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 국제결혼 이주여성과 같이 상대적으로 사회에서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약자인 집단과 접촉 경험이 많은데, 이는 접촉경험의 상황과 대상이 자신이 속한 집단보다 열등한 경우 문화간 감수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연구결과를 보면, 다른 어느 집단 보다 타문화와 접촉 기회에 많은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상호작용 유능함', '문화차이 존중', '상호작용 즐기기' 영역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타문화 거부감' 영역에서는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며, '자문화 우월감' 영역도 낮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지즌 지역 거주 학생들에게는 타문화와의 접촉 교류 경험에서 부정적 인식보다 긍정적 인식을 심어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형식적 다문화 경험정도 측정결과 마지즌 지역 거주 학생들의 '미디어, 외국어, 여행' 요인 경험정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는데 타문화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 교정을 위해 긍정적 시각의 미디어 경험에 많이 노출되도록 하고 다양한 인구 사회학적 배경의 장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단체나 학교 단위에서 이중 언어 강사를 양성하여 영어 이외의 외국어 교육 및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덧붙여 직접적인 교류가 많은 지역인 만큼 문화간 갈등 상황 발생 시 원만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문화간 역량훈련과 같은 성공적인 상호작용의 경험을 할 수 있게 하는 다문화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테니즌 지역 거주 초등학생의 경우, 비형식적 다문화 경험정도와 문화간 감수성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그러나 테니즌 지역의 경우, 마지즌 지역과 달리 외국인들이 기존 생활권과 다르게 문화간 감수성 수치가 높게 나왔지만 현실적인 이익과 충돌하였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수치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현재 거주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다문화 현상에 대해 균형 잡힌 시각을 기를 수 있도록 기준에 많이 접했던 선진국 영어권 국가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한 문화와 종교, 언어권 국가의 관점에 대해서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외국인 비밀집지역 거주 초등학생의 경우, 비형식적 다문화 경험정도 전체 평균은 가장 낮았으나 문화간 감수성 전체 평균에서는 세 집단 중 중간 수치를 나타냈다. 테니즌 지역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집단

보다 열등한 집단과의 직접적인 접촉 경험이 없고 주로 선진국과 같은 우위에 있는 집단들을 미디어나 외국어 교육, 여행을 통해서 간접적인 접촉 경험을 하여 다문화 인구나 현실적인 갈등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비형식적 다문화 경험 요인 중 직접적인 접촉 요인(가족, 친구, 지역사회, 학교·학원)을 경험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서 '외국인 문화교실(CCAP)'이나 해외 학교와 자매결연 교류활동, 인터넷을 활용하여 다른 문화권의 학교와 동시에 같은 주제로 학습을 진행하는 프로젝트 프로그램(iEARN 등)을 많이 장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디어' 요인 경험 시, 다양한 국가의 문화를 간접적으로나마 많이 접할 수 있도록 하며 우리 사회의 외국인 노동자 같은 마지근에 대한 내용을 시청할 때에는 그들을 불쌍하고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인식하여 잘못된 편견과 고정관념을 고착화하기 보다는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사회 구성원으로 인식하여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배려와 글로벌 에티켓 교육 등을 다문화 교육에서 강조하여야 한다.

### < 참고 문헌 >

- 김옥순(2008). 한·중 예비교사들의 문화간 감수성 비교연구. *비교교육연구*, 19(1), 193-217.
- 김옥순(2008). 해외체류경험과 외국어 사용 능력에 따른 문화간 감수성 수준의 차이. *미래 청소년학회*, 5(1), 45-67.
- 지은주(2011). 아동의 다문화 경험과 문화간 감수성 및 부모 고정관념이 아동의 다문화 고정관념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논문.
- 박윤경 외(2008). 초·중등 교사의 문화다양성과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태도. *시민교육연구*, 40(3), 1-28.
- 이정연(2010). 초등 교사의 경험에 따른 다문화 민감성 연구.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이혜진(2009). 초등학생의 다문화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연구.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Amir, Y. (1969). Contact hypothesis in ethnic relations. *Psychological Bulletin*, 71, 319-342.
- Chang, I.S. (2002). Formation and transformation of teacher's ethnic identifications and attitudes toward language diversity: A recursive path analysi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Chapel Hill.
- Chen, G.M., & Starosta, W.J. (1994). Intercultural Sensitivity, In Samovar L., & Porter,R.(Eds). *Intercultural communication: a reader(7th ed)*, Belmont, CA: Wadsworth.
- Chen, G.M., & Starosta, W.J. (2000).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intercultural sensitivity scale*. Paper presented at the 86th annual meeting of the National communication Association, Seattle: WA.
- Ford, W.S. (1986). Favorable Intergroup Contact may not reduce prejudice: Inconclusive Journal Evidence, *Sociology and Social Research*, 70(4), 256-258.
- Hammer, Bennett & Wiseman. (2003). Measuring intercultural sensitivity: The intercultural development inventory.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7(4), 421-444.
- Rothfarb, M., & John, O.P. (1985). Social Categorization and behavioral episodes : A cognitive analysis

of the effects of intergroup contact. *Journal of Social Issues*, 41, 82-104.

Smith, Moallem & Sherrill (1997). How preservice teachers think about cultural diversity: A closer look at factors Which influence their beliefs towards equality. *Educational Foundations*, 41-61.

Stephan, W.G. (1987). The Contact Hypothesis Revisited: Black-White Interaction and Positive Racial Attitudes. *Social Forces*, 71(3), 781-795.

Ward, J.M. (1996). *The relationship of preservice teacher' cross-cultural experience with their believes about teaching diverse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ansas State University.

법무부. 2011년 2월 통계월보.